

도시에 지친 청춘에 바치는 음악, 그리고 영화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존 카니 감독 '비긴 어게인'

영화 '비긴 어게인' (2014)은 유달리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알려져 있다. 재개봉도 두 차례, 이번에는 개봉 10주년 기념 세 번째 재개봉이라 한다. 우리의 M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MZ세대들에게 그만큼 공감대를 울렸던 영화라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가수', '싱어송라이터', '작곡가', '연예기획가'가 꿈인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당시에 필자가 몸담았던 대학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던 학과가 실용음악과였다. 서울의 우수 대학에서 앞다투어 실용음악과를 만들었고 늘 입시경쟁률 1위를 기록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 아침에 스타가 되는' 꿈이 학생들에게는 1순위라서였을 것이다.

기마민족의 후예라서일까. 노래방, 방문화,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는 음주가무의 문화에 익숙한 사회문화적 배경도 흥행에 성공한 원인에서 빼놓을 수 없다. 연출은 음악 영화 '원스' (2006)로 음악과 영상의 융합이라는 성공을 거둔 존 카니 감독이다. '원스'로 검증된 감독에다 OST가 오랫동안 많은 사



존 카니 감독 '비긴 어게인'.

판씨네마(주) 제공

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뮤지션다운 연기를 펼친 마크 러팔로, 마룬 파이브의 보컬인 애덤 리바인, 노래도 잘하는 젊고 풋풋한 키이라 나이틀리의 매력 등등 영화적 감성을 객석에 공감으로 배달하는 영화. 무엇보다 감독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 필자에게는 훈훈한 영화로 기억된다.

영화는 뉴욕의 한 라이브 바에서 시작된다. 노래를 마친 가수 스티브가 객석에 앉아 있는 그레타(배우 키이라 나이틀리)를 소개하자 떠밀리다시피 무대에 오른 그레타는 자신의 노래, 도시에서 지친 청춘에게 바치는 잔잔한 발라드 'A step you can't takeback'을 부른다. 이 자리에 음반제작자 댄(배우 마크 러팔로) PD가 있었다. 이 오프닝을 감독은 세 번 반복한다. 두 번째는 댄의 입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레타의 입장에서 각각의 상황을 반영한다.

천재 프로듀서 댄은 자신이 만든 음반제작사에서 어처구니없게 파면을 당한다. 함께 음반사를 창업한 사울이 음악을 사업으로 바라보게 되어서였다. 음악평론가였던 댄의 아내 미리엄은 출장중 함께한 가수와 바람이 나 댄은 이혼을 통보받는다. 총체적 난국을 맞은 댄은 자살을 기도하고자 한다. 죽을 생각에 싸여 발걸음 따라 들른 주점에서 그레타의 기타반주와 노래를 듣자 댄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드럼 등이 저절로 상상이 되고 시뮬레이션으로 대입이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한다. 그레타는 자신과 반려 고양이 이를 위해 곡을 쓰는 싱어송라이터다. 그녀는 애인 데이브(배우 애덤 리바인)가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을 하게 되어 함께 뉴욕에 오지만 락스타로서 성공하자 데이브의 변심으로 절망에 빠진다.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그레타가 우연히 서게 된 라이브 바 무대.

이를 본 댄의 눈에 띄어 음반제작을 제안받는다. 뮤지션은 음악 하나로도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 남자친구가 작곡한 노래의 조그마한 변화 하나로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구성이 재미있다.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가 이 영화를 위해 기타를 남자친구에게 배웠는데, 그러다 큰 싸움이 날 뻔했다는 뒷이야기도 재미있다. 새로운 상황, 무시하기 힘든 유혹과 맞닥트리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것들에 소홀하는 것일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은 그레타의 애인 데이브나 댄의 사업 파트너 사울처럼 초심을 잃고 화려한 새 여자에게 정신을 팔거나 잘 팔리는 화려한 음악에 매달리기 십상이다. 감독은 몰들지 않은 자신만의 음악으로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뮤지션, 댄과 그레타를 그려냄으로써 이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 영화를 뮤지션으로 살다 간 형 짐 카니에게 바친다'는 헌문을 띄움으로써 감독의 형이 어떤 소신으로 음악을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잃지 않는 초심과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객석에서는 거두어갈 수 있다. 필자가 실용음악과 강의시간이면 해주는 두 가지의 얘기가 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직업일수록 은퇴가 빠른 편이다.' 단시간에 승부를 내는 일보다 오랜 노력과 공을 들일수록 경험적의 결과가 다른 법이다. 다른 하나는, '청년 성공은 비극이다.' 실패의 쓰디쓴 경험이야말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처절하게 그리고 겸허히 얻는 반면, 일찍이 성공을 하면 결과에 대한 가벼움, 독선과 자만이 커지게 마련이다.



나라 망신

취재수첩
한규빈
취재2부 기자
gyubin.han@jnilbo.com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광주시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때문이다. 기자는 최근 일본에 다녀왔다. 현장에서 가와사키 프론타레-알비렉스 니가타(J1리그)와 시미즈 에스펄스-요코하마

FC(J2리그), 가와사키 프론타레-광주 FC(ACLE) 등 세 경기를 지켜볼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잔디였다. 가와사키 토토로키 스타디움과 도쿄 국립경기장은 킥오프에 앞서 양탄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돌 만큼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월드컵경기장은 이 두 곳에 비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지난달 17일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2024-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을 앞두고

여기저기 흙이 노출되고 영양제가 포함된 색모래의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정 마지막 날 찾은 도쿄의 한 중고 유니폼 샵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점원이 기자가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길래 '광주에서 왔다'고 답하자 '나는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의 팬이다. 광주FC는 정말 강한 팀이다'라고 칭찬해 뿌듯한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이내 '우리 닷산 스타디움은 J리그에서 잔디가 가장 좋지 못하는데 광주월드컵경기장은 정말 심각하지 않냐'는 질문을 꺼냈다. 잔디 상태는 물론이고 대형 콘서트 개최됐다는 등 관련 사정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차마 답을 할 수 없었다. 광주시체육회는 대형 콘서트 개최 후 잔디 복구에 미온적이었다. 영양제 살포와 잔디 파종, 배토 작업 등을 실시했고 AFC 실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뒤늦게 볼 잔디 전면 보식을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트럭 시위를 진행하는 등 광주FC 팬들의 성토에 구단주인 강기정 광주시장까지 직접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경기하기에 이상이 없다'고 공언했으나 첫 경기를 지켜본 AFC의 판단은 '경기 개최 불가'였다. 결국 광주FC는 오는 22일 예정된 조호르 다를 탁집 FC와 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을 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사실상 중립 경기로 치르게 됐다. 광주시체육회의 관리 실패가 일본은 물론 말레이시아에까지 망신살을 뻗친 셈이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광주시체육회는 여전히 문제의식이 없다. 광주시체육회의 한 간부는 대체 구장 개최 결정 후에도 "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문제가 없었다. 전국적인 이상 기온이 원인"이라며 반성하지 않았다. 특히 "문수월드컵경기장 잔디가 더 안 좋았다. 울산HDFC 때문에 우리까지 머리채를 잡힌 모양새가 돼 억울할 따름"이라고 항변했다. 과연 그는 잔디에 대한 부끄러움은 광주FC 팬들과 관계자, 광주시민들의 뒤편이라는 것을 알까.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